DAY 16 · 2부 여기까지 온 길

모델보다 대화창이 세상을 바꿨다고 — 2022 ChatGPT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9월 22일

더 큰 모델이 아니라 말 걸 수 있는 창이 AI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어.

한 줄로 말하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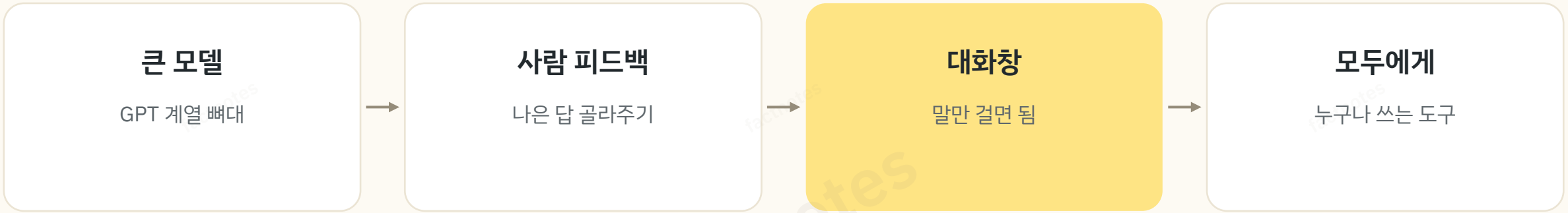
1. 2022년 11월 30일, 어제 배운 GPT 계열 모델을 **말을 주고받는 대화창**에 얹어서 누구나 쓰게 열었어. 그게 ChatGPT야.

2. 모델을 새로 발명한 게 아니야. 사람들이 **어떤 답을 더 좋아하는지** 골라 준 걸로 다시 다듬어서, 시키는 걸 제대로 알아듣게 만든 게 컸어.

3. 그래서 이 날 바뀐 건 기술이 아니라 **쓰는 사람의 범위**였어. 예시를 붙일 줄 아는 사람만 쓰던 걸 전부가 쓰게 됐거든.

그림 한 장으로

큰 모델이 '누구나 쓰는 것'이 되기까지



왼쪽 상자만 있을 때는 조용했어. 오른쪽 두 상자가 붙자 세상이 알아챘지.

핵심: 세상을 바꾼 건 더 큰 모델이 아니라 '말을 걸 수 있는 창'이었다

실험 · 전후 비교

2020년과 2022년, 뭐가 달라졌나

쓰는 법

전

글을 넣으면 그 뒤를 이어 쓰는 창이었어. 원하는 걸 얻으려면 예시를 직접 몇 개 붙여서 넣어야 했지.

후

그냥 말을 걸면 돼. '숙제 도와줘'라고 치면 되묻고 답해. 앞에 한 말도 기억하고 이어서 얘기해.

달라진 건 모델이 아니라 창이야. 문턱이 사라지니까 쓰는 사람이 확 늘었어.

말귀

전

'요약해 줘'라고 하면 요약 대신 비슷한 문장을 계속 이어 쓰기도 했어. 다음 낱말을 잇는 게 원래 하던…

후

사람들이 두 답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골라 준 걸 모아서 다시 다듬었어. 그랬더니 훨씬 말귀를 잘 알아듣게…

연구팀 실험에서 사람들은 13억 개짜리 다듬은 모델의 답을 1,750억 개짜리 안 다듬은…

쓰는 사람

전

주로 개발자와 연구자가 썼어. 코드를 조금 다룰 줄 알아야 문을 열 수 있었거든.

후

중학생도, 할머니도 폰으로 말을 걸어. 숙제, 요리, 번역, 고민 상담까지 쓰임새가 제멋대로 퍼졌어.

기술이 문턱을 넘어 생활로 들어온 날이야. 사람들이 AI를 체감한 건 논문이 아니라 이…

항목을 고르고 「2020년」과 「2022년」을 번갈아 눌러 봐. 모델 크기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면 성공이야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16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ChatGPT가 세상을 놀라게 한 가장 큰 이유는?

① 완전히 새로운 뼈대를 발명해서
② 인터넷보다 빨라서
③ 누구나 말만 걸면 쓸 수 있게 해서
④ 숫자를 1조 개로 늘려서

Q2 사람 피드백으로 다듬는 방법이 보여준 결과는?

① 항상 큰 모델이 이겼다
② 답이 무조건 길어졌다
③ 크기와 상관없이 결과가 같았다
④ 13억짜리 답을 1,750억짜리보다 더 좋아했다

Q3 ChatGPT가 처음 공개된 해는?

① 2022년
② 2020년
③ 2017년
④ 2025년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③

모델 계열은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. 달라진 건 예시를 붙일 줄 몰라도 그냥 말 걸면 되는 창이었지.

Q2

④

사람이 고른 선호를 모아 다듬으니 훨씬 작은 모델의 답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어. 크기만이 답이 아니라는 신호야.

Q3

①

2022년 11월 30일이야. 2017년은 트랜스포머, 2020년은 GPT-3였지.

더 큰 모델이 아니라 말 걸 수 있는 창이 AI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어.



내일은 생각하고 답하기 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풀이부터 쓰는 모델 이야기.